

철학사

53 칸트의 이해론

(아서 홈즈 박사, 휘튼 대학교)

오늘 오후에는 칸트의 초월적 미학을 넘어 초월적 분석철학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이 복잡한 용어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면, 이는 감각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에 대한 칸트의 고찰에서 개념적 이해와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에 대한 고찰로 옮겨간다는 의미입니다. 초월적 미학은 감각 지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초월적 방법은 경험 내의 모든 개별적인 것들, 즉 경험의 내용을 괄호 안에 넣어, 개별적인 경험의 모든 변수와 관계없이 특징적인 지각 경험의 보편적 구조를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가 두 가지 감각 지각 형태, 즉 공간(우리가 사물을 3차원적으로 보는 방식)과 시간(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방식)을 발견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한 형태에 대한 연구가 수학, 기하학(공간에 대한 과학), 그리고 산술(수열에 대한 과학, 시간의 순차성에 대한 과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칸트가 우리에게 말했듯이, 보편적인 개념이 없는 지각은 맹목적입니다. 단순히 "파란색 패치"라고 말하고 "패치"와 "지금"을 덧붙이는 것만으로는 시공간적 속성, 즉 형태를 파악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란색 패치"라고만 말하면 누군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겁니까?"라고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긍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파란색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험을 이해하고 지각 경험을 해석하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초월적 분석철학자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해석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인 그러한 추상적 개념들을 추구합니다. 마치 형상이 지각을 구조화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의 범주는 우리의 이해에 구조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범주들에 도달해야 합니다. 자, 이 범주들을 살펴보면 서며칠 전에 언급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들과의 비교를 기억해 두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고의 10가지 범주, 즉 존재의 범주들을 제시했습니다.

칸트는 사유의 범주를 12가지로 구분했지만, 존재의 범주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점을 명심하십시오. 그의 범주는 사실상 뉴턴의 범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뉴턴 과학은 객관적인 세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 즉 주관적인 사고 구조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는 과학에 대한 실재론자가 아니라 반실재론자입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현실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현상에 대해서만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칸트가 범주를 제시할 때, 그것들을 세 개씩 네 그룹, 즉 네 개의 삼항으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헤겔 변증법, 즉 정, 반, 합 의 시작이며, 모든 사유, 그리고 헤겔에게 있어서는 모든 존재를 구조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헤겔을 다룰 때, 우리는 그의 삼항, 즉 정, 반, 합, 개념, 그리고 범주를 살펴볼 것입니다. 칸트의 12개 범주도 이러한 삼항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변증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범주 에 접근하고 범주를 규정하는 방식은 정말 직관적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고 분류하는 방식, 다시 말해 경험을 분류하는 방식이 이러한 것들이라면, 우리가 내리는 다양한 종류의 판단을 분류할 수 있다면, 그러한 판단들이 선형적 범주를 구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388쪽과 389쪽을 살펴보세요. (카우프먼 책을 가져오셨 기를 바랍니다 .)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보세요. 388쪽과 389쪽을 보면, 388쪽 상단에서 그가 네 가지 항목 아래 12가지 서로 다른 논리적 판단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그것들을 살펴보면, 아마도 여러분이 논리학 243 수업에서 사용했던 것과 같은 입문 논리학 교재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의 개수는 우리가 일반 논리학, 즉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종류의 판단, 즉 보편 판단, 특수 판단, 개별 판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인 판단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고, 개별적인 판단은 그렇다. 그리고 특별한 판단은 바로 이 소크라테스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양적 범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은 질적 범주로, 긍정적, 부정적, 또는 불확정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무한'이라는 단어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불확정적인, 예/아니오, 어쩌면 같은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긍정과 부정. 모든 A는 B이다, 어떤 A도 B가 아니다. 긍정, 부정. 논리학에서 우리가 하는 관계적 판단에는 정언 판단(모든 사람은 죽는다), 가설 판단(크레타인이라면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선택 판단(있다, 아니다)이 있습니다.

논리 기호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호 형태로 나타내는 것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P와 Q는 두 가지를 결합한 논리곱이고, $P=Q$ 는 가설, 즉 'P이면 Q이다'라는 의미이며, $P=Q$ 는 논리합, 즉 '둘 중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논리적 형식, 논리적 형식, 그는 판단의 논리적 형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상은 다시 말해, 어떤 것이 문제가 있거나, 단순히 주장되거나, 필연적으로, 즉 명백히 필요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양상은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 '반드시 그렇다'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언어 연구에서 동사의 범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판단의 구체적인 대상 외에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 즉 범주는 무엇일까요? 389페이지 하단에서 그는 판단에 사용된 범주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 질, 관계, 양상이라는 네 가지 범주입니다. 12가지 범주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 네 가지는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

, 복수성, 전체성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다. 반면, 관계 속에 존재하는 실체와 속성, 즉 실체에 내재하는 속성, 질, 실체와 질의 구별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다.

원인과 결과, 그리고 상호성, 이 둘 모두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가 추구했던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선형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양상(modality)에는 우연성과 필연성, 가능성과 필연성, 그리고 존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주들은 어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뉴턴과 로크의 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개념들에 대한 경험이나 선형적 지식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 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꽤 간단 하죠 .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388쪽과 389쪽에서 그가 하는 또 다른 말에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388페이지의 두 번째 열, 아래쪽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고를 종합하고 통합하는 종합은 제가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것, 즉 영혼의 맹목적이지만 필수적인 기능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지식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우리가 그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식에는 상상력이 필수적이다. 자, 389번 문단, 첫 번째 열의 첫 번째 큰 단락을 다시 보라.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표현들이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된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표상들이 아니라 표상들의 순수한 종합을 개념 아래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초월 논리학, 그리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모든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선형적으로 주어져야 할 첫 번째 것은 순수 직관, 공간, 그리고 시간의 다양체이다.

두 번째는... 음, 다시 한번 상상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홉스와 로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들의 상상력이란 단순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즉 기억 속에 각인되는 이미지를 의미했죠.

당신이 마음속으로 허구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 즉 그림 이미지나 감각 이미지 말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이 모든 것을 하나의 통일된 이해의 장으로 통합하는 어떤 상상적인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은 현실 세계에 그와 상응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 겠죠? 우리는 우리만의 조직화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죠. 이것이 낭만주의 시대의 상상력 개념의 시작입니다. 계몽주의 시대에는 상상력이란 단순히 감각 이미지를 갖는 것이었죠.

자, 이제 그것은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마음속에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칸트에 따르면, 마음속에 통일된 세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보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바로 범주들이죠.

아, 그리고 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범주들은요. 그러니까 명심해 두세요. 아, 제가 말장난을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일단 그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네.

네, 낭만주의자들을 언급하셨는데, 칸트의 관점은 어땠나요?
낭만주의자들은 상상력의 보편적 범주가 없다고 주장했나요? 아,
낭만주의자들은 범주, 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범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정신과 영혼의 창조적 자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낭만주의자들이 칸트의 사상에 덧붙인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라는 생각에 대한 반발입니다. 칸트가 여전히 고수했던 이성의 지배라는 개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낭만주의자들에게 있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낭만주의자들은 우리가 감정적이고, 느낌을 갖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인 존재라는 점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칸트는 과도기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로 그는 우리가 경험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가 경험 세계를 창조하는 존재라는 관점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페르니쿠스 혁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상상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는 낭만주의 언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데이비드? 어제 학교에서 나온 질문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형식적인 면에서도 유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형태와 범주는 모두 선형적 전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감각 지각은 모든 감각 인상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의 공간 과 시간이라는 개념은 선천적인 관념이나 자명한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들은 단순히 기능적 원리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나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물을 인지하는 실제 방식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물을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인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잠깐, 이건 원자료에서는 알 수 없었던 사실인데.'

내 마음이 그런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범주도 마찬가지로요. 머릿속에 있는 범주 목록을 훑어보면서 '자, 이 경우에 양, 질, 관계, 양상 범주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예 그런 범주가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논리적 구조, 즉 사고방식을 살펴보면, '아니, 잠깐만. 나는 그런 방식으로 사물을 구조화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잖아. 나는 가설을 경험하지 않아. 내가 얻는 판단의 형태는 바로 가설인 거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동할 때만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기능하는 모습을 통해서만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발짝 물러나서 그것들을 추상화하면 됩니다. 그것들은 감각 지각의 형식일 뿐입니다. 만약 칸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멈춰서 '이것을 암기해야 해, 공간과 시간의 두 가지 형식만 외우면 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아니, 굳이 스스로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신의 감각 인식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가 왜 "단 두 개뿐"이라고 말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아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공간적 관계 속에서 인지하고, 시간적 관계 속에서도 인지합니다. 아, 이제 이해했어요. 나머지 열두 가지 범주에 대해서 말하자면... 네, 나머지 열두 가지가 아니라, 바로 그 열두 가지요.

네. 칸트는 직관이 유입되어 분리될 때에만 이러한 것들이 명확한 근거나 명확한 용도를 갖는다고 믿습니다. 네.

지각이 없는 이러한 개념들은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식 형이상학, 또는 옛 형이상학이 과학이 되려면 지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네. 오직 개념만을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개념만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 분석하려고 합니다.

합리주의자들의 형이상학과 그들의 선천적 지식은 지각이 결합된 개념을 다루려는 시도입니다. 감각 지각만을 다루는 경험주의자들은 개념이 없는 지각을 다루려는 시도입니다. 따라서 그가 지각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주의자에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

그리고 그가 개념 없는 지각은 맹목적이라고 말할 때, 그는 경험주의자에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어. 어떤 종류의 형이상학도 통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해석적 개념 없이는 경험적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적 입력 없이는 선형적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형태와 범주를 렌즈에 비유했습니다. 렌즈가 보이시나요? 아니요. 렌즈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렌즈를 끼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건 렌즈를 벗었을 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렌즈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경처럼 코에 무겁게 걸쳐지지도 않고요

그냥 당신이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알겠죠? 도움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단어들을 묶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 형태와 범주가 선천적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세요. 플라톤의 의미에서 그것들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데카르트의 의미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의미에서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것들이 학습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 배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통해 인식되고 식별될 수 는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칼? 음, 제 생각엔 흠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 인과관계라는 개념 같은 렌즈 없이는 현재 경험 너머의 사실들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없다면 당신의 인식은 맹목적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그건 자명한 사실이죠. 아니, 아니. 잠깐,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첫 번째 질문은, 렌즈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렌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 간단히 답하자면, 렌즈는 경험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심오한 답변은, 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흠은 인과관계라는 렌즈 없이는 현재의 경험 너머의 어떤 것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죠? 어떤 상황을 인지할 때, 렌즈와 상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그 상황을 포착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각 지각의 경우, 감각 경험의 모든 구체적인 요소, 모든 특정한 속성 등을 제거하고 무엇이 남는지 살펴봅니다. 그러면 시공간적 형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논리적 사고 유형을 살펴보고, 생각하는 내용의 세부 사항을 모두 제거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특정 논리적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작동하는 개념적 장치. 좋습니다, 그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접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각은 그 근원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지만, 어떻게든 경험 속에서 하나로 통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각이 갖는 통일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지각장의 통일성. 알겠죠? 두 번째는, 지각의 형식과 이해의 범주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만나는 걸까요? 이것은 칸트의 심신 문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지각과, 그것을 포착하는 이해 사이의 관계죠.

인식은 개별적입니다. 범주는 보편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떻게 결합될까요? 바로 그것이 그가 이해의 도식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각의 통일성이고, 이는 이해에 있어서 지각과 사고의 통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개요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이야기의 완성 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험의 통합에 관해서는, 그의 첫 번째 진술이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살펴보셨 으면 합니다. 391쪽 첫 번째 열의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약 모든 표상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면, 즉 모든 특정한 감각, 관념, 단순한 관념이 각각 고립되어 다른 것들과 분리되어 존재한다면,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생겨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서로 연결되고 비교되는 표상들의 전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단순한

관념에서 복잡한 관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흠은 연상, 심리적 연상, 유사성, 인접성, 인과관계의 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칸트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는 감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각에 시놉시스(synopsis)라는 개념을 부여한다.” 시놉시스는 ‘함께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퍼시스(opsis)는 광학(optical)에서 유래했습니다.

요약이란 모든 것을 함께 보는 것이다. 나는 감각이 모든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감각의 직관 속에는 항상 종합적인, 그에 상응하는 다채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수용성은 자발성과 결합될 때 비로소 지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자발성은 모든 종류의 지식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세 가지 측면을 지닌다. 첫째, 파악, 즉 파악이라는 종합이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을 의식하고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파악은 표상 속에 있습니다. 직관, 고대의 기억, 그리고 통찰력 속에서 영혼의 변형으로서 표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들을 상상 속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재미있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상상 속에서 그것들을 재현하는 것. 그리고 그건 마치 그 단어의 옛날 용법처럼 들리네요.

상상 속에서 무언가를 재현할 때, 그것은 기억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념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파악의 종합, 재현에서의 종합, 인식에서의 종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그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다룹니다. 여기서 파악이란 시간의 형식 아래 표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물을 시간적 통일체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브르르, 브르르, 브르르’ 기억하세요? 3번으로 들렸지만, 실제로는 하나로 들렸죠. 시간적인 통일성 말이에요. 특히 속도를 높이면, ‘브르르’ 소리가 하나로 들리죠.

아니면 자세히 들어보면 셋, 어찌면 넷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파악하는 행위 속에는 시간이라는 형식 아래에서 어떤 종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392페이지에서 생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상력에 의한 생식이죠. 네, 그는 상상력을 동원해 연상 작용을 활용합니다.

상상력을 통한 연상 작용이죠. 제가 낸 소리를 재현하려면 먼저 그 소리를 상상해야 하잖아요. 즉, 상상을 통한 재현인 거죠.

그러니까 상상력은 그것을 기억 속에서 재현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기억 속에서요. 아니면 실제로도요 .

상상력. 유사성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연관시키고 더 일반적인 경험적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례들을 기억하여 이러한 사례들과 결합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모든 일반화 과정에는 상상력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인식, 즉 인식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개념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들은 이해의 범주적 구조에서 도출된 것입니다. 394페이지를 보세요. 저자가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394페이지의 첫 번째 전체 단락입니다. 개념 없이는 어떤 지식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모호하고 불완전하더라도 말입니다.

개념이란 언제나 일반적인 것으로, 하나의 규칙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아이디어를 그 개념과 관련지어 평가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물체라는 개념은 그 개념으로 사유되는 다양체의 통일성에 따라 외부 현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규정하는 규칙이 됩니다.

저것, 저것, 또 다른 것들 에 대한 포괄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갖게 됩니다 . 그리고 인식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추상적인 개념인 '몸' 을 사용하는 규칙을 충족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존재하는 것, 실체입니다.

그 분류 목록에서 찾아보세요. 우리가 외부의 무언가를 인지할 때마다 신체라는 개념은 연장성, 불침투성, 형태에 대한 표현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필연성은 항상 초월적인 조건 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표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각 의 통합 속에서 세 가지 주관적 원천 , 즉 파악, 재현, 인식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 즉 내면의 종합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 결과, 초월적인 통찰 의 통일성이 생겨납니다 . 이는 인간 의식의 내면적 자원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칸트의 마음속에 '나, 이 자아, 이 통합하는 마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오래된 문제 아닌가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생각은 얼마나 순진하게 들리는지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을 얻어낸 걸까요? "나는 생각한다"라니, 정말 복잡한 과정이군요.

파악, 재생산, 인식, 형태, 범주, 이런 것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무엇? 나. 하지만 사물은? 이 모든 것에서 사물은 어디에 있죠? 남는 건 메커니즘과 기능뿐인데요.

아시 겠죠? 칸트는 사실상 이 분석 단계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최대치는 내가 초월적인 통찰의 통일체라는 것, 즉 내 모든 생각의 통일된 총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음, 데이비드 흄이 했던 말보다는 좀 낫네요.

그가 말한 대로라면, 나는 지각들의 묶음이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묶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적어도 칸트는 지각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파악, 재생산, 인정, 그리고 그것들이 함축하는 모든 것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금요일 에 초월적 변증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금요일에 그의 초월적 변증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때, 우리는 그가 영혼과 같은 개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가 '나'에 대해 출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며, 이 시점에서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나'가 초월적인 지각의 통일체 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어찌 보면, 이는 존 로크 의 전통 전체와 매우 일맥상통합니다 . 바로 개인적 정체성에 관한 문제 말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나'는 무엇일까요? 경험주의 전통에서는 그 답이 기억에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과거와 현재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자각이 바로 '나'라는 것이죠. 적어도 경험적인 '나', 내가 자각하는 '나'는 그렇습니다 . 하지만 칸트는 그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건 파편화된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 그는 통합된 자아 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 의미에서 큰 진전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통합된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선형적인 전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아 는 ~이다 그것의 통일성 에 기여합니다 . 이제 제가 '나'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통일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가 상상하는 세계를 통합하고, 우리 세계를 창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 는 스스로의 통일성을 창조한다. 나는 나 자신을 창조한다. 칸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사르트르는 그렇게 말한다.

사르트르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창조한다." 칸트가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존주의가 칸트의 작업의 부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의 초월적 통일성 말입니다. 네, 물론 여전히 문제는 자연 자체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396 페이지의 이 부분에 대한 그의 결론을 살펴보십시오. 396페이지, 두 번째 열의 맨 아래 부분입니다.

자연이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고, 그 법칙에 있어서도 우리의 기준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매우 이상하고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칸트가 일으켰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자연의 본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의 생각에 의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 자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 즉 우리가 자연에 맞춰 지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매우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현상 전체, 즉 현상의 집합체에 불과하며, 자연이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마음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표상들의 집합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자연을 오직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 능력, 즉 초월적 지각을 통해서만, 그리고 모든 가능한 경험의 대상이라 볼 수 없는 바로 그 통일체 안에서만 본다는 사실에 더 이상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 세계가 우리에게 어떻게 통합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순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과 본질의 구분을 예상하시는군요.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문 있으신가요? 그 외에는 도식화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403권부터 도식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문제는 형태와 범주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특정한 감각 경험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둘은 이질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질적인 두 개념 사이에 접점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접점이라도 있을까요?

데카르트의 송과선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송과선은 물리적인 기관인데, 어떻게 비물질적인 것과 접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송과선이 우스꽝스러웠던 이유입니다.

나는 "게으름 피우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보짓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카르트의 실수죠. 그리고 칸트는 우리에게 또 다른 송과선 이야기를 꺼내거나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감성 과 이해 , 형식과 범주 사이 에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로크가 공간과 시간 에 대해 논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 공간 은 외적 감각의 형식이고, 시간은 내적 감각의 형식이라고 했죠. 로크의 언어로 말하자면, 공간은 감각의 형식이고, 시간은 우리의 모든 성찰의 형식입니다. 당신의 시간 의식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당신 의식 속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가기도 하고, 빠르게 가기도 하고, 멈춰 있기도 하는 겁니다. 시간 의식. 빠르게 가기도 하고, 느리게 가기도 하고, 멈춰 있기도 하죠.

성찰적 의식 의 형태입니다 . 하지만 물론, 우리가 개념이나 추상적인 생각들을 인식하는 것은 내면 의식, 즉 성찰적 자각 속에 있습니다. 이해되지요 ? 그래서 그 들은 점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감각 지각과 사고 모두 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개념 입니다 . 왜냐하면 둘 다 의식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모든 범주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모든 범주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추상화를 만들어냅니다. 이해 되지요? 이것을 인과관계에 대한 시간적 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그렇지 않나요? 원인은 결과와 동시에 발생하거나 결과에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 그리고 실체라는 개념은 '존재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정체성. 시간 속 에서 끊임없이 .

그래서 시간과 관련된 이러한 범주들은 우리에게 스키마를 제공합니다 . 스키마는 그가 만든 용어입니다.

개념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개념 모델. 패러다임.

추상적인 개념. 그런 종류의 것. 도식.

그러면 당신은 다른 맥락에서 '스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죠. 하지만 404페이지를 보세요. 404페이지, 맨 윗부분 말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사실 우리의 순수한 감각적 개념은 사물의 이미지가 아니라 스키마에 의존합니다. 스키마의 복수형이 바로 스키마입니다.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어떤 이미지도 그 개념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선으로 이루어진 작은 그림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길이뿐 아니라 너비도 가진 사물이 떠오르나요? 선은 그런 게 없잖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건 오직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현실에는 없는 무언가일 뿐이에요.

감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사고 속에서, 추상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삼각형과 관련된 상상력의 종합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추상적인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언어로 표현합니다. 어쩌면 그것들에 대한 수학적 공식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들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식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405페이지에서 그는 다양한 범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체의 도식. 405쪽, 첫 번째 완전한 단락. 실체의 도식은 시간 속에서 실재의 연속성이다.

그것의 표상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경험적으로 규정하는 토대가 되므로, 다른 모든 것이 변하는 동안에도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체를 하나의 토대, 즉 도식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 인과관계의 도식이 실재하는데, 일단 존재한다고 가정되면 항상 다른 무언가가 뒤따릅니다. 그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원인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는 규칙이나 모델과 같습니다

스키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해 의 스키마화 .

405쪽, 페이지 중간쯤에서 그는 스키마란 규칙에 따라 시간을 선형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규칙에 따라 시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대상에 적용될 때, 이러한 스키마는 범주의 순서대로 시간의 연속, 시간의 내용, 시간의 순서, 그리고 시간의 이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스키마란 사고에 수반되는 조건들을 말합니다 . 이해 의 스키마화라고 할까요 . 자, 이것을 바탕으로 현상과 본질에 대한 부분은 아주 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초월적 분석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 모든 주체를 현상과 본질로 구분하는 근거 말입니다.

현상, 기억해, 걸모습일 뿐이야. 내게 중요한 건 그 소리야.

누메나, 덩 운트 지크 .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선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덩 퀴르 미.

덩 운트 지크 , 등등. 제게 중요한 건 현상입니다. 음, 어디 보자, 412 페이지쯤?

412페이지. 그는 두 번째 열 맨 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을 피하려면, '현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현상의 직접적인 표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감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각이라는 한정 없이도 그 자체로 어떤 것, 즉 우리의 감각과 독립적인 대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누메논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 "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그는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 즉 우리만의 형식과 범주를 통해, 우리만의 관점을 통해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물 그 자체, 즉 누메나 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글썄요, 그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를 위한 것(ding für mich) "이라는 구절에 주목해 보세요 . 여전히 "ding"이 붙어 있죠. 그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적 입력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그것들이 뒤죽박죽 섞이고,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선형적 형식과 범주들이 작용하고, 그 결과물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현상에는 그 입력을 제공하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 한, 어떤 내용도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알겠어? 얼음 트레이만으로는 얼음을 만들 수 없잖아. 물을 넣어야지. 렌즈만으로는 친구 얼굴을 볼 수 없잖아. 왜곡된 렌즈를 통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뭔가 다른 요소가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뚱뚱해 보이거나, 너무 키가 커 보이거나 하는 식으로 왜곡되는 거울 말이에요. 만약 그런 왜곡 렌즈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정신적인 렌즈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니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이것은 버클리 의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사실, 『순수이성비판』 2판에서 그는 이 부분에 ‘이상주의 반박’이라는 장을 추가하여 버클리의 이론을 반박했습니다. 1판에서 그가 버클리식 이상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하지만 우리는 감각을 통해 현실 세계가 제공하는 원자재를 바탕으로 세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구조를 만들어 놓더라도, 거기에는 분명 뭔가가 있다는 거죠. 확실하요. 확실하요.

그러니까 그는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현상론자입니다. 현상론자는 현실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상론자는 간단히 말해 우리의 지식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한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현상론자입니다. 처음 읽을 때는 그가 ‘현실’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는 경험적 현실, 즉 우리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에게는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환각에 시달릴 때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우리에게도 매우,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알겠죠? 하지만 저 밖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과학도 알려주지 않고, 합리주의적 형이상학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분석의 결론은 현상과 본질의 구별에 관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는 누메논 개념을 제한적인 개념이자 문제가 있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제한적인 개념인 이유는 우리의 지식 주장을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메논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주장할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한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모순적인 것도 전혀 아니지만, 그게 뭔지도 무지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다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뭘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문제는 후대의 한 작가가 '자기중심적 딜레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가 개입하지 않고는 무언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범주가 개입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알 수 없으니까요. 뭐, 이게 바로 그의 인식론이죠.

초월적 변증법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칸트가 실제 형이상학을 시도하는 방식에 대한 고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전적인 형이상학적 논증 몇 가지와 칸트가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